

학점 인플레이션 해소, 평가방식 혁신 선행돼야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지난 몇 년간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 온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대학가에 지속되고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의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학교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학교에 속한다.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평점 평균은 86.6점, 90점을 넘는 학생은 31.7%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 학교 졸업생의 평점 평균은 88.7점, 90점 이상 학생은 45.9%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점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요구하는 기업과 사회의 탓이 크다. 기업 인사팀에 재직했던 박왕근 씨는 “기업에서는 많은 지원자를 뽑은 시간 안에 판단해 뽑아야 한다”며 “이때 제일 정확한 기준이 데이터에 기반한 학점을 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는 각 학교 별 학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다”면서도 “같은 학교 지원자들의 학점이 동일하게 높다면, 학점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민아(교육대학원) 교수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의 어려움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부분의 고교 졸업생들이 하고 싶은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간다”며 “각 대학은 졸업생들이 이후에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하니 높은 학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지적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5학년도 경영대학이 최초로 실시한 ‘B0률’이다. B0률은 강의 당 평균을 3.0으로 맞춰야 하는 제도다. 당시 경영대학 이호창 학장은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과 강의 간 학점 평준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B0률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B0를 시행 후 학생들의 학점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해 표면적으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부합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B0률에 기반한 성적을 받은 학생 A씨는 “당시 B0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학생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재수강 제도 등을 이용해 학점을 올린다.

을 완화하기 위해 B0률을 도입했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의 당 평균을 3.0으로 맞추려다 보니 열심히 해도 높은 학점을 받기는 어려워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균에 근접한 학점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B0률의 한계를 짚었다.

해결방안으로 시행된 B0률,

학생 반응 싸늘

교수들 역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다. 우기동(지구사회봉사단) 교수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다 보면 학교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기도 한다. 오민아 교수는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더라도 상대평가로 인지 절대평가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다른 게 사실이다”라며 “절대평가라면 기본만 하더라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평가는 무조건 옆 사람보다 잘 해야 하니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고 상대 평가의 이점을 설명했다. 다만 “과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율성을 빼앗기고, 대학교육 자체의 의미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 상대평가가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알 수 있다”고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달랐다. B0률에 기반한 성적을 받은 학생 A씨는 “당시 B0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평가방식을 대체로 교수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덜한 학교의 대표적인 예이다. 숭실대는 2018 졸업생 평점 평균 85.9점, 90점 이상 학생은 22.8%로 국내 주요 대학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다. 숭실대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학점포기제’를 없애고 상대평가 과목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학점은 학생들에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 강화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주시는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적을 단순히 잘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내실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을 것이다”고 학점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3월부터 1년간 새로운 평가방식인 ‘학부 교수자율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수자율평가제란 다양한 평가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도다. 교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택일하거나 두 가지 방식 평가를 절충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를 택하더라도 등급별 인원제한은 없다.

이화여대 학적팀 장지현 차장은 “이 제도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도입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학점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와 학점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절대평가를 결충한 제도로서 과목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

다는 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입 단계라 정확한 결과나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임은정 씨는 “교양과목은 점수 대가 워낙 촘촘해서 상대평가였을 때는 0.1 점 차이로 A, B 학점이 갈리졌다”며 “절대 평가로 바뀐 후에 압박감을 덜 느끼다보니 교양을 더 편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 전공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바뀐 제도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은

‘역량평가방식’

우리학교에서는 ‘후마니타스재단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역량평가방식’이 다른 평가방식의 예시 중 하나다. 역량평가방식은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과 발전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역량평가방식에는 자기 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 등이 있으며, 학점은 P/F 방식이나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역량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지표란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행동특성을 도출해 측정이 가능한 행동지표로, 개인별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역량 향상을 지향하는 지표다. 복합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

적 유연성 등이 포함된다. 각 과목마다 해당하는 역량 몇 가지를 채택해 평가에 활용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기동 교수는 역량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가 아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로 고민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하지만 오민아 교수는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학생들의 민원이 가장 덜 발생하는 평가 체제가 바로 지필고사다”라며 “자기평가 혹은 동료평가를 포함한 역량평가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라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상적인 역량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평가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서열화에 기대어 학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소화해냈는지 여부를 교수자가 직접 보고, 적절한 준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점을 내는 체제가 잡힌다면 건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요구에 부합하려다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다. 문제점으로 인해 생긴 결과만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만 생길 뿐이다.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평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배움을 위한 교육으로 체질의 변화를 꾀하며 올바른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등록 기간 : 2018.10.15.(월) ~ 11.2.(금) 16:00까지

• 추가 등록 기간 : 2018.11.5.(월) ~ 11.9.(금) 16:00까지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8. 11. 5.(월) ~ 12.14.(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2018.10.31.(수), 11.1.(목) 17:30

• 일본어회화 : 2018.11.1.(목) 17:30

• 중국어회화 : 2018.10.31.(수) 17:30

Sample Lecture

• 영어 : 2018.10.31.(수) 17:15

※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강의시간표

•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 레벨

Beginning / Low-Intermediate / Intermediate / Advanced

• 수강료

150,000원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 레벨

Screen English / 초급 Ted Talk / 중급 이상

• 수강료

90,000원

오후반 18:00~19:30 (화)

Academic Writing Workshop (Resume&SOP) 중 고급 이상

일본어

•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수)

•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 수강료

150,000원

오후반 18:00~20:00 (화, 수)

18:00~20:00 (화, 수)

중국어

•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수)

•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수)

• 레벨

초급1

• 수강료

120,000원

프랑스어

•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수)

• 레벨

초급1

•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수)

• 레벨

초급1

• 수강료

120,000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공고

2019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오니 해당자는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수료증자료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19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

2 접수기간 2018. 11. 1(목) ~ 11. 9.(금)

3 접수 및 문의처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031) 201-3401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양식수령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공통과목 연계전공 포함)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전공별로 각각 제출

5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